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며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간다

백두산 영웅청년 3호발전소 건설장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함경남도려단에서

백두산대국의 주인공들로 위훈떨리며 그 이름도 자랑높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조선청년들의 애선 신념과 의지가 깃든 충정의 산물을 당 제7차대회에 드리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백두청춘들의 앞장에는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함경남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자신들을 청년영웅으로,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신념에 간직하고 총력투쟁을 벌려 언제까지나 불타오르는 불꽃의 열정을 불꽃 4일만에 건설하고 본격적인 타입전투에 진입함으로써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날 때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함경남도려단은 지난해 12월까지 1호발전소건설을 위한 인공못건설을 진행해왔었다. 려단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인공못건설을 마감단계에 서 다그치였다. 그런데 현장명령이 떨어졌다. 3호발전소건설장으로 시급히 이동하여 콘크리트투입구간을 지을 데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3호발전소건설장에

전투력있는 려단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현장명령이 떨어졌다.

려단장 김철룡동무를 비롯한 려단지휘관들의 대답은 오직 한마디였다. 《알았습시다!》

눈보라치는 수심리감을 단숨에 달려온 려단은 결사의 각오 밑에 총포성없는 적진을 벌려나갔다.

려단지휘부에서는 공사장이 아름다운 조건에 맞게 로복배치와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단위당 시간내에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하였다. 길이 백수십m, 너비 수십m의 구간에서 1700여대의 발대물들을 10m높이로 총총히 세우고 그 위에 4000m²의 비닐막을 씌워야 하는 공사는 치밀한 작전과 지휘를 떠나서는 결코 짧은 시일안에 끝낼 수 없었다. 려단지휘부에서는 방대한 공사량과 현장조건을 잘 타산하여 현장명령지휘부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초정리공사와 자체확보를 비롯한 공사준비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작업조건이 불리한 구간들에 전투력있는 대대들을 배치한것을 비롯하여 대대들의 특성과 경향을 고려하여 로복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려단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힘있는 사상공세를 들이쳤다. 공사장에 붉은기들이 새차게 휘날리고 청년들을 위로하는 부르짖는 구호와 전투속보가 곳곳에 나돌았다. 려단기둥에 솟아올라있는 울리

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울려잡으며 새차게 메아리쳤다.

려단이 맡은 공사는 말 그대로 하나의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1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공사조건이 극도로 불리해졌다. 살을 에일듯이 맹판 추위와 새차게 부는 칼바람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보다는 기계수단의 도움이 없이 순수 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더 큰 문제였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순간의 주저나 용의도 몰랐다.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장에 우리 백두청춘들이 제일 먼저 들어서자!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는 이런 불같은 북소리가 울려나왔다. 6대대, 8대대, 9대대의 지휘관들이

남편저 얼음물속에 뛰어들었다. 다른 돌격대원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남대원들이 만류하였지만 나아선 처녀들 격대원들도 허리를 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들어가 발대물들을 부어안았다. 얼음이 동동 뜬 차터된 물속에서의 한초한 초는 그대로 한시간, 두시간 맞잡아였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강주위, 하지만 그 얼음속 추위속에서도 백두청춘들의 심장은 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백두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백두의 칼바람에 심신을 단련한 그들이 어찌 이런 난관앞에 주저앉겠는가.

두렵게 쌓인 눈무지를 헤쳐며 작업을 하면 장갑과 신발이 폭젖은 했지만 그것들은 잠깐사이

에 마르곤 하였다. 풍풍 언 바위들과 나무에 붙은 얼음벽에도 돌격대원들이 메고오는새면 순간에 녹아버려곤 하였다. 언제나 폐기에 넘쳐 현실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돌격대원들의 몸은 그대로 불길고 불덩어리였던 단것이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이런 영웅적투쟁으로 하여 몇집건설공사는 불과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계속되고 1월 13일 려단은 콘크리트투입구의 첫 타입을 진행하였다.

지금 함경남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선봉대, 돌격대가 될 결사의 각오로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힘있게 떨치자, 단숨에의 기상

남포시대대에서

백두청춘들의 파감한 공격정신은 무덤이언제기초굴착전투장에서도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그 앞장에는 남포시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그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올릴 불타는 각오안고 낮에 밤을 이은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매일 공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남포시대대는 굴착전투에 착수하여 대당하고 립체적인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1월 20일 현재 9300여m²의 굴착실적을 기록하였다.

다른 려단들과 마찬가지로 남포시대대가 맡은 굴착구간도 공사에 매우 불리하였다. 작업 전구간이 특별히 좋은 암석층으로 되어있고 지형조건도 불리하여 기계수단을 리용할 수 없었다.

특히는 경사가 급한 비탈면인 것으로 하여 버럭운반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대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필승의 신념과 용기에 넘쳐 파감한 공격전에 진입하였다.

지휘관들은 대대의 특성에 맞게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데서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대원들의 수준과 심리상태를 고려한 선동방법이 토의되고 이어 공사장 어디서나 백두청춘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경제선동이 활기있게 울려왔다.

또한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한 대대의 지휘관들은 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고 그것은 곧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돌격대원들은 작업초시기 현장조건으로 하여 순수 정태에 함마로 알반을 들어벌수밖에 없었지만 무한대의 청춘의 힘과 용기를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며 굴착전투를 벌려나갔다.

대대의 적지 않은 성원들이 다른 작업에 동원된것으로 하여 인원이 부족하였지만

단 돌격대원들은 한사람이 두루, 세루씩 하였다는 열의와 각오에 넘쳐 역겹같이 힘을 휘둘렀다.

버럭을 나르느 대원들도 100여m의 경사급한 비탈길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르내리며 매일 많은 량의 버럭을 처리하였다.

얼마후부터 착암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리용할수 있게 되자 대대는 더욱더 신념에 넘쳐 공사를 다그쳐나갔다.

대대의 지휘관들은 착암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고 그 정비와 보수를 잘하도록 작전을 치밀하게 세워나갔다. 또한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기 위하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청년돌격대원들은 변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박남철, 리상명동무를 비롯한 한 돌격대원들은 단숨에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공사장의 함마명수로 이름떨치고있다. 박별순, 김금향, 리선경동무를 비롯한 처녀돌격대원들도 함마와 정태를 잡고 한몸 단단히 하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대대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분과 초를 쫓아가며 2세한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언제나 단숨에의 기상을 안고 당을 위하여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아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무덤이언제기초굴착전투는 마감을 가까스로 하고있다.



단상 봄을 부르는 백두전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최후대입니다.》

우리가 성, 중앙기관대대의 번성을 찾았을 때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이 번실바닥에 주먹만 한 덩이들이며 봉투들을 한가득 쥘고 신발작업같은것을 하고 있었다. 돌격대원들에게 물어보니 꽃뿌리와 각종 꽃씨들이라는 것이였다.

(이 한겨울에 무슨 꽃을...)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듯 대대의 일군인 문광일동무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야 완공의 그날 발전소가 꽃속에 문득 피어나니까.》

지금은 북방의 엄혹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사방이 백설천지이고 창가엔 눈바람소리가 아스르르 들려온다. 3호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겠다고 청년돌격대원들이 결의해나섰지만 앞을 가

로막은 시련과 난관은 수없이 많다.

겨울철에는 건설공사를 못하는것으로 되어있는 여기 백두고원에서 추기도 돌격대원들의 결심이 실천으로 되리라는것을 쉽게는 장담해나서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백두청춘들의 마음은 완공의 그날에 가있다. 발전소 완공의 기쁨과 함께 흘날릴 꽃보라를 그려보고있다.

이런 신념과 락관이 과연 어디에서 생겨났던인가.

저 하늘의 태양과도 같이 무한한 힘과 열정을 주는 당의 믿음과 사랑을 세상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도록 받아안은 백두청춘들이기에 그들의 심장의 열기는 한겨울의 강추위를 몰아내고 봄날을 앞당겨오는것 아닌가.

그렇다. 백두전역이 봄을 부르고있다. 백두청춘들의 가슴속엔 언제나 발전소완공의 그날 꽃속에 잠긴 발전소수내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 불같은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어찌 흠과 돌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고만 볼수 있겠는가.

지난해 11월말 하루가물막이공사에 동원된 황해북도려단단에서는 형편할수 없는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공사장 형편과 지형조건으로 하여 려단의 전투장에는 기계수단을 투입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두

이렇게 백두의 칼바람을 언제 안고 돌격전의 앞장에 선 청년돌격대원들의 이음을 다는 적을 수 없다.

또 그들의 피라는 헌신이 숨배인 기초사리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허나 완공의 그날 충정의 보고와 함께 터져오를 승리의 함성에 당과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었다.》

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기본전세를 쟁기 위한 돌파구는 자신들이 열었다는 결심을 안고 하루빨리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려단은 이런 투지, 이런 열정으로 파감하고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결실을 시작하지 못하면 그만인 공사를 끝내야 하는 건설장을 눈여겨보았다.

전회의 나날 영웅들이 개척한 한치한치의 돌격로처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늘어난 한m, 한m의 가을막이들이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말없이 전하여주고 있다.

조국이며, 우리를 믿으라! 그것은 결코 구로나 선동선설이 아니였다. 당과 조국의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할 백두청춘들의 불변의 맹세이다.

황해북도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더욱더 새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조국이며, 우리를 믿으라!

황해북도려단에서

돌격대원들의 의지를 걸었다 못 날리는 점점 더 추워지고 폭설까지 쏟아졌다. 기초사리에 붙은 얼음장을 밀어내면 순간에 또 얼어붙곤 하였다. 물속에 5분간만 들어갔으면 이가 딱딱 마부뒹치고 얼얼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돌격대원들이 찾은것은 결코 아늑한 속소나 우동불이 아니였다.

지휘관과 대원이 하나로 되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까내고 밀어낸 얼음장들을 찾아 사공치는 장물을 떼쳐나갔다.

백두대지에 바치는 청춘들의 애국충정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



《문학예술부문이 들고 일어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라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동해 지구를 끓게 한 경제선동의 복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치도록 정치사업, 화선식전선동사업들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후방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불바람을 일으켜가고있는 사상전선의 전조병들속에는 중앙에술단체 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도 있다.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경제선동대의 10여일만에 걸치는 새해 첫 경제선동활동은

중앙에술단체 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

모두의 가슴속이 당의 호소에 경제선동의 거대한 불바람으로 화답해갈 불타는 흥정의 맹세, 항성의 결의로 새치게 불려왔다. 이들의 결의는 그대로 실현으로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첫 경제선동이 원산철도차량엔지니어링소, 문명강철공장, 문명제련소와 흥원수산사업소 등 하부의 유식도합이 수십회에 달하는 경제선동활동 진행했다.

한 단원에서 공연을 마치고마자 기동하여 다음목적지에 도착한 즉시 또다시 공연을 진행했고 회관에서,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때로는 야외에서 벌어드는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마이크를 들어주고 매일 수차례의 경제선동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도 물려서지 않았다. 보령의 젊음으로는 시대의 벽한 흐름에 따라 설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이들은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경제선동의 우렁찬 노래소리를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하나의 지향, 불같은 모습

투쟁의 기수들이 예술인경제선동대의 힘찬 노래소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로동계급의 심장을 연세게 불어넣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도 총공작전에서 전세에 예술인들처럼 우리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시대에 걸맞은 사명감과 임무를 다해나가기. 이런 불같은 각오와 실천으로 경제선동대원들의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장단은 수도를 멀리 떠나 로동자들과 일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때로는 불타는 입연이에서, 때로는 땀방울이 맺힌 가슴을 부리는 바다가의 가시밭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을 벌리면서 하루에도 3~4개 단위에서 경제선동을 하느라 배부르도록 가일이 부르도록 목이 쉬어 버리가 일었다.

연제간 문화선동회관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였다. 말하기

조차 힘들어하는 국립연극단 배우 박철영동무에게 대장 손철남동무가 이번만은 재담종목을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조종하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즐거움 웃음소리를 들어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며 무대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두가 마음은 뜨거웠다. 모든것을 경제선동과 바친 무한한 헌신이 어찌 박철영동무의 모습만이나.

오늘의 전투장에서 순간도 물러설수 없다고 하면서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경제선동기를 이어간 인기있는 최창기수령인 공명배우 손철남, 고정주동무들과 전철철, 박광희동무들, 녀성의 몸이지만 언제나 경제선동의 앞장에 서있을 리원희, 고은별, 박진옥동무들, 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목숨까지 헌신적노력을 기울인 윤환연출가 최준성동무와 교예배우들이 한열일, 문명강철공장...

10여일의 낮과 밤과 더불어 흘러간 미려한 경제선동대원들의 그 모든 투쟁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지 못했다.

오직 한마음 총공작전의 승리를 위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투쟁의 진군나팔소리를 우렁차게 울려가며 그 길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이들이 같이 울뚱하고 총창한 나팔수들이 있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내 조국의 전진 발걸음은 더욱 힘차고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오늘도 들끓는 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으며 경제선동의 길에 서 있다.

김 성 룬

당 제 7차대회와 명작창작

◇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오늘날의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에서도 명작창작의 새로운 전진기를 열어놓기 위한 총공작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필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첫 수호인이 장대한 폭음으로 지구를 뒤흔들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장엄한 현실이 우리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을 팡팡 두드리고 있다. 시대를 빛내이는 명작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훌륭하게 창작해내는가, 이것은 오늘날 당 제7차대회를 앞둔 문학예술부 창작가, 예술인들, 일군들의 당성, 혁명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예술부문의 기본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작창작이다. 로동계급이 더 높은 생산적의향으로, 과학자들이 최첨단과학연구성과로 뜻깊은 5월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한다던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를 더욱 들끓게 하는 명작창작으로 자신들이 지닌 당에 대한 충정심을 조국과 인민에게, 시대에 걸맞게 증명하여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시대의 문학예술인들이 지녔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역무를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까지는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던 시기에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5년이나 10년이 걸려야 한 편지 만들던 수준의 가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시대의 1년 남짓한 기간에 5년이나 만들었던 불꽃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불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화로 옮겨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문학예술부문이 용용

쓰며 들고일어나 문학예술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명작창작으로 빛내인 1980년대처럼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라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시대의 문학예술인들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수많은 명작들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빛내인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온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충정이 비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당 제 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야 한다.

◇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당앞에 걸친 전투목표를 무조건 완벽하게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당조직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배 세고 명작창작을 위한 총공작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상사업을 세세하게 벌려야 한다.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명작창작성과로 맞이 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양을 가지고 창작창조적 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을뿐 아니라 인민들이 좋아하며 즐겨보는 영화가 명작이라고 가르치 주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당정책에 민감하며 예술창조에 대한 주체의 미학관과 문예관에 기초하여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선들에 전투적의향을 접하고 시대의 본질을 세련한 견해들을 적극 찾아내어 천만군민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하는 의미있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모란봉악단과 풍문극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뜻깊은 올해에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의 표창을 높이 울리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평양구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흥준 찍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혁명과 시대가 제기하는 긴박한 요구를 바로 알고 여기에 자기의 창작적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나가야 합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기초조직시기 당이 준 과업을 열매밭을 지새워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말겠다는 불같은 창조정신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시대를 빛내이는 명작창작성과로 당중앙을 충성있게 받들며 1970년대의 작가들처럼 살며 투쟁하고있고, 이것은 작가동맹의 전세 일군들과 작가들이 심장마다에 스스로가 제기한 몸붙이고 오늘의 격동하는 시대에 자신들을 비추어보게 하는 삶과 투쟁의 자욱이다.

주체조선의 첫 수호인시대에 원전선공한 기세높이 당 제 7차

대회를 전례없는 혁명과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총공작전에 피가칠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실은 그대로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철학성이 있으며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소재와 형식을 조인하여 하는 창작실현의 기동성 토양으로 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원회에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모든 작가들이 어머니당대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목표를 대담하고 현실성있게 세우고 존엄높은 주체의 강령에서 삼매 투쟁하는 영애와 강령을 안고 오늘도 하루하루 높은 창작실적으로 빛내이는 데 모든 사업과 생활이 지향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창작실현에서 실력적인 뒷받침,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고있으며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명작창작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작가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전세 일군들과 작가들은 지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전세대 작가들이 지녔던 그날의 고 정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투쟁열, 혁명열로 불라게 하는 전세없는 명작창작으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와 조선작가동맹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창작전투에 매진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시범적인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명작창작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았다.

촬영소주관에 들어서니 속보판에 띄여진 글씨가 첫 눈에 안겨들었다.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시대적명작으로!》

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누구나 기다리는 만화영화 《소년장수》 연속촬영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나타내며 촬영소주관에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이 대변에 알았다. 우리와 만난 예술부총장 김로준동무는 새해에 들어와 58부-60부를 내놓는데 이어 당 제 7차대회를 50년에 대한 제작을 끝낸 목표에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한시바삐 그 창작가들을 만나보고싶었다.

우리가 들린 곳은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제작을 맡고있는 제 1창작대의 원도창작실이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있는 창작가들속에 마침 단장 조영덕동무도 있었다.

그는 촬영소를 찾으면서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연구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들 많이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창작이 이렇게 자주 모여야 창작소론을 진행해준다는데 그때마다 정말 생동한 세 부형상요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웃음속에 보내는 그 짧은 한순간의 장면을 위해 바치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피와 노력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우는 장면에 대한 형상이 잡되지 않아 고심하던 한 창작가가 퇴근길에 오른 베스안에서 갑자기 그 형상이 떠올라 우는 연기를 하는 바람에 주위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며 아이들의 통성을 진실하게 반영

만화영화들, 교토정서를 잘 지킬때 대한 내용을 담은 만화영화 등 교육교양적의가 10여편의 만화영화제작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만화영화대국으로 빛내일 열정과 투쟁을 안고 영화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일어서나가는데 기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촬영소안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상반년 창작계획을 당 제 7차대회 열리기 전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힘찬 창작전투를 벌려가고 있다.

진정 어디에 가나 창작열에 불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서 촬영소안의 공기마저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명작창작으로 빛내일 심금을 울리는 만화영화창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 곳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힘찬 투쟁과 더불어 세차게 타오르는 영화혁명의 불길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조 함 III
사진 본사기자 리 진 영

1970년대 작가들처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대로 창작실현에서 실력적인 뒷받침,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고있으며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명작창작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작가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전세 일군들과 작가들은 지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전세대 작가들이 지녔던 그날의 고 정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투쟁열, 혁명열로 불라게 하는 전세없는 명작창작으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와 조선작가동맹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창작전투에 매진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시범적인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명작창작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았다.

촬영소주관에 들어서니 속보판에 띄여진 글씨가 첫 눈에 안겨들었다.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시대적명작으로!》

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누구나 기다리는 만화영화 《소년장수》 연속촬영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나타내며 촬영소주관에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이 대변에 알았다. 우리와 만난 예술부총장 김로준동무는 새해에 들어와 58부-60부를 내놓는데 이어 당 제 7차대회를 50년에 대한 제작을 끝낸 목표에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한시바삐 그 창작가들을 만나보고싶었다.

우리가 들린 곳은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제작을 맡고있는 제 1창작대의 원도창작실이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있는 창작가들속에 마침 단장 조영덕동무도 있었다.

그는 촬영소를 찾으면서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연구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들 많이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창작이 이렇게 자주 모여야 창작소론을 진행해준다는데 그때마다 정말 생동한 세 부형상요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웃음속에 보내는 그 짧은 한순간의 장면을 위해 바치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피와 노력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우는 장면에 대한 형상이 잡되지 않아 고심하던 한 창작가가 퇴근길에 오른 베스안에서 갑자기 그 형상이 떠올라 우는 연기를 하는 바람에 주위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며 아이들의 통성을 진실하게 반영

만화영화들, 교토정서를 잘 지킬때 대한 내용을 담은 만화영화 등 교육교양적의가 10여편의 만화영화제작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만화영화대국으로 빛내일 열정과 투쟁을 안고 영화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일어서나가는데 기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촬영소안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상반년 창작계획을 당 제 7차대회 열리기 전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힘찬 창작전투를 벌려가고 있다.

진정 어디에 가나 창작열에 불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서 촬영소안의 공기마저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명작창작으로 빛내일 심금을 울리는 만화영화창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 곳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힘찬 투쟁과 더불어 세차게 타오르는 영화혁명의 불길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조 함 III
사진 본사기자 리 진 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폐막되였다.

13일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자료들과 우리의 자립과 기술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산출물 가운데서 140여건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폐막식이 2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하여 우수청년동맹조직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표창장, 발명증서 등이 수여되고 결의토론회가 있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가 주체조선의 첫 수호인의 장대한 폭음으로 2016년의 장엄한 시작을 열어준 그 기세, 그 본래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총진군으로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청년동맹창립 7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청년동맹을 최첨단 과학의 앞장에 내세워주고 결의결을 뜻깊게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청년학생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세계를 앞서나갈 용대한 포부와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앞날의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을 떠메고나갈 강성조선의 역군들로 또 든든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평양시, 함경남도, 평안남도에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평양시, 함경남도, 평안남도에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이번에 천리마강철합기소에서 과제를 실어보내기 위한 사업에서는 선교, 서성, 모란봉, 만경대, 대동강구역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모범을 보였다.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많은 과결과 함께 성의있는 몰사들도 강철전선에 지원하여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용맹자들을 고무해 주었다.

특파기자 최수복

도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금속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철전선지원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켜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평안남도에서

에서도 많은 과제를 수취하여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북창군, 덕원시, 독주군, 안주시, 개천시에서는 몰사들에 필요한 과제를 수취하여 북창호력발전연합기업소와 청원강화력발전소에 보내주어 전력생산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도민보안국의 일군들과 도민보안원들도 몰사들과 과제를 수취하여 순천화력발전소에 보내주었다.

도민보안국에서는 수십대의 화물자동차도 과제를 집중수송하는 데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많은 량의 과제를 강철전선과 화력발전소들에 제때에 기탁해 주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 혁철



석탄산란투쟁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가는 혁신자들을 축하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관평연합기업소 통신관평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양시에서

이 경쟁적으로 벌어져 수많은 과결과 함께 성의있는 몰사들도 강철전선에 지원하여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용맹자들을 고무해 주었다.

특파기자 최수복

평안남도에서

에서도 많은 과제를 수취하여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북창군, 덕원시, 독주군, 안주시, 개천시에서는 몰사들에 필요한 과제를 수취하여 북창호력발전연합기업소와 청원강화력발전소에 보내주어 전력생산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도민보안국의 일군들과 도민보안원들도 몰사들과 과제를 수취하여 순천화력발전소에 보내주었다.

도민보안국에서는 수십대의 화물자동차도 과제를 집중수송하는 데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많은 량의 과제를 강철전선과 화력발전소들에 제때에 기탁해 주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 혁철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이번에 천리마강철합기소에서 과제를 실어보내기 위한 사업에서는 선교, 서성, 모란봉, 만경대, 대동강구역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모범을 보였다.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많은 과결과 함께 성의있는 몰사들도 강철전선에 지원하여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용맹자들을 고무해 주었다.

특파기자 최수복

도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금속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철전선지원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켜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평안남도에서

지식은 광명, 아는것이 힘이다. 누구나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실력가가 되자

혁명적 학습열풍이 창조와 혁신을 안아온다

평양 시 건재 관리 국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학습으로 올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걸은 평양시건재관리국 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구국헌인 당정책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춘 실력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열풍을 일으키고있다. 부서마다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학습한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배우고배우는 학습기풍이 차 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적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명조들과 당문헌들을 한히 깨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불씨가 켜져야 하겠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관리국에서 내세운 전투목표는 간단단언이 아니다.

평도업적단위들을 더 잘 꾸리고 중요대상들에 대한 견제보장, 미팅감발발성의 발전능력을 높이고 평양강철공장의 압연강재생산을 위한 원료, 자체보장, 평양화학건재공장에서 아크릴의장재공정확립과

평양주철관공정에서의 부족판 생산능력확장사업 그리고 승호리세멘트공장의 생산능력확장, 강남요업공정에서의 조선기와생산공정확립 등 견제품의 질제고와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목표는 일제기 불수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목표가 높고 이름할수록 모든 일군들은 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중요한 투쟁구호로 들고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이 고조되던 올해 첫초 모든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강조하였다.

《눈이 세운 뜻깊은 올해의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름길은 바로 견제품업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견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함에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같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현재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데 있습니다. 혁명적 학습열풍속에 모든것이 무르익고 열매맺는다는것을 잊지 마시라.》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에 모든 일을 새로운 높이에서 기발하게 착상하고 용의주도하게 전개해나가는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거두려면 실력이 높아야 하고 실

력을 높여야만 부단히 학습하여야 한다. 이것을 명실한 관리국인의 모든 일군들이 자신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분과 초를 조개거리며 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책임일군들이 혁명적 학습열풍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승풍기가 되었다. 관리국장 박희권, 기사장 강정섭동무들은 현대적인 승강기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실리적인 무인제생산공정확립 등 산하공정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전투조치와 지휘로 드바른 속에서도 당의 도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해 소 유하기 위한 학습에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국장들은 강태복, 로진남 동무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배우고 생산지도를 강화할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더욱 원만히 갖추기 위한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당정책을 강하게 함께 과학기술학습을 정상화해나갔다.

자기 부단, 자기 단위사업에 정통하고 실리적인 사업실적으로 당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이 학습에 열중하는 책임일군들의 학습열풍의 맑은 선동으로, 위대한 정치사업으로 되

었다. 이침출근시간과 저녁퇴근시간에도, 사무실과 산하공정들로 달리는 차안에서도 그리고 휴식일과 잠시간도 놓치지 않고 관리국인의 모든 일군들은 견제품업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한히 깨들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읽으며 말은 입무수행은 위한 묘술을 탐구하고 사색을 무르익였다. 모든 부서의 일군들은 학습을 당제 7차대회를 맞으며 진행하는 산하공정들의 설비현대화, 견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 자신들의 정치실무수준도 더한층 높이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학습을 하후한지도 어김없는 생활일과로 내세우고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혁명적 학습열풍이 물아치는 속에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마감견제품 적극 개발하고 자강력제일주의로 산하공정들의 기술개선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혁명적이며 실리적인 방도와 방안들이 빈이 제기되었다. 승호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의 빛이있는 단위들을 더 잘 꾸리고 평양강기공정, 평양목재공정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혁명적 교양실을 꾸리는 문제, 시인의

모든 견제품공정들의 생산공정, 생산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견제품의 국산화비율을 높이고 평양시를 더욱 융성화하게 건설하는데 필요한 견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산하공정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은영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

이 모든것은 관리국일군들이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제의 경제관리사상과 리론, 현대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비약하는 오늘의 비천 현실과 결부시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 과정에 맞춘것들이었다.

하나하나가 다 혁명적 학습열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혁명적 학습열풍을 일으키거나 하는 과정에 우리의것이 제일이고 자강의 길만이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평양시건재관리국의 일군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한목소리로 말한다.

혁명적 학습열풍이 창조도 혁신도 안아온다. **본사기자 김지곤**

배우자

1. 시간은 쉽없이 흐르네
그러니 돌아보지 마시고
금같이 귀중한 분초를
아껴잡시다

(후렴)

배우자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해
배우자 배우자 앞날을 위해
우리의 식으로 락원꾸리자

2. 아는게 보배고 힘일세
그러니 열정을 다 바쳐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꽃피게잡시다

(후렴)

3. 한없이 소중한 조국도
너와 나 모두의 행복도
열심히 배우고 배울 때
빛이 납니다

(후렴)

지식 탐구열의가 넘치는 집

락량구역도서관을 찾아서

머칠전 마스한 해상이 한껏 퍼지면 우리는 락량구역도서관을 찾았다.

열람실에 들어서니 벌써 만원이었다. 겨울철방학을 만난 학생들과 로동청년들, 로인들로 붐비는 크지 않은 열람실에서 우리는 온 나라에 타락지는 학습열풍을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당공인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강의실과 전자열람실, 다

메세전집물실, 도서열람실에서 독자들은 갖가지 봉사를 받고있다.

우리가 빨간 수화기를 끄고 컴퓨터화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있는 한 청년의 모습에서 이목도 눈길도 떼지 못하는데 도내출연인 오인숙동무가 나직이 알려주는것이 있었다. 이름은 김은혜, 나이는 31살, 어느 화학발전소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는 동무인데 원격강의를 받고있다는것이였다.

잠시후 우리는 김은혜동무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학예회를 마치고 컴퓨터앞에 마주앉았을 때 피곤한줄 모르겠습니

다. 북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심정이랄까. 지금 공부하고있는 평양기계종합대학 원격교육과정을 마치면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과정을 졸업하게 됩니다.》

《학예회 이만저만이 아닌 청년이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평양교육연구소 소장 정영철 동무와 교직원들인 김인수, 박영준, 김진수, 리현용동무도 이 도서관의 열심독자들이었고 서로가 경쟁자였었다.

《사흘만 책을 읽지 않으면 팔에 새가 박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하는 이때 어제의 실력이 자만해있다가는 시대의 락오자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 배움의 급행열차에 올랐습니

다.》

정영철소장의 이야기였다. 우리와 이어지는 그 잠시동안 남들에게 뒤진것 같아 부지런히 책장을 번지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습에 진두!》라는 구호가 지도모르게 우리 마음에 되새겨졌다.

우리는 도서열람실에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딸네 집에 나들이를 온라왔다는 77살 난 김준덕로이에게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파락자인 아들과 구역인민위원회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사

회의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싶어 도서관정읍을 하기 시작했다는 로인이었다. 도서관을 찾을 때 마다 열람실을 꼭 짚는 독자들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바가 컸다는 로인의 이야기도 무척 감동깊었다.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배운다지 않습니까. 내 비록 배말은 되었어도 배우는데는 아직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수순을 보유한 강국의 한 공민이 아니니까.》

강국의 한 공민!

그렇다. 온 나라 인민이 최선과 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나라가 바로 과학기술강국이 아니겠는가.

태어난 애기공진에 기다리고 배를 나이가 되면 학교가 학생을 기다리는 나라, 나라의 곳곳에 배움터가 마련되어있고 한살의 질을 철철 높이는 이 땅에서 누구나 배움의 열매를 따지 못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독자들의 학습에 방해가 될때로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 시각에도 무리로 이곳을 찾는 열람자들의 발걸음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울려왔다.

새 지식탐구의 발걸음소리, 그것은 곧 보다 창조와 혁신으로 이어질 진진기소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려오는 것이였다.

글 및 사진 장정철

청춘의 슬기와 지혜를 날개로 더 높은 곳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투쟁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과학기술발전대회 학생들을 축하하는 회합에서 만났던 청년들을 아예 소개한다.

현장도 하나의 대학이다

하고 단성을 위한 집적적으로를 진행하여 그들의 학습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한강하게 밀어주고 있다.

5세대 황송기, 4세대 박진호, 2세대 오강일동무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처럼 이들이 건설에 필요하여 여러 공구들을 자력으로 창안, 제작, 도입하여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건설공정의 질을 철철 높이는 이바지하고있다.

현장적인 시간이나 학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새것에 민감하고 정확도에 불라는 청년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높여주기 위해 돌격대원들속에 제기되는 좋은 의견들을 과학기술단반에 반영

하루를 배워도 산지식으로

지난해 농업계획화 학습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제26차 전국로조그랑행진 및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크게 이바지한 수백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기술혁신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양할 미배를 향해 내달리는 청년들의 불라는 애국열의와 함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욱 억세어지는 청년강국의 막강한 힘을 다시금 가슴부듯이 느낄수 있었다. 전시회장에서 만났던 청년들을 아예 소개한다.

이 기계는 한해전 정광성동무가 어느 한 농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농장의 관리운영상태를 연구하는 과정에 트랙터의 각종들이 높지 못해 논밭갈이에서 몸시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착상해낸것이다.

정광성동무가 자기의 착상을 농업기계화학부 교원인 박명철동무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전공분야도 아닌데 왜 할수 있을가?》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선생님, 우리가 실습을 통해 체험으로 한가지라도 해결해야 산지식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정광성동무는 박명철동무의 방조밑에 종합도양관리농기계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끝까지 밀고나갔으며 수안군 석회동농장에서 시험단계를 거쳐 완성된 장안품을 내놓을수 있었다.

박명철은 이런 청년대학생들이 바로 조국을 떠돌고나갈 앞날의 역군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라.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건보보수사업소 로동자 김강동무는 탐구심이 강한 청년이다.

그가 창안하여 완성한 현대화된 수제견조차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원래 이 견조차는 건설현장 오배되어 먼지가 세어나와 로동자들의 건강과 사업소의 생산문화확립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리강동무는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기와 같은 피끓는 청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이미전부터 무리히오던 견조차게조안을 빨리 완성시켜야

을 내놓았다.

은갈이때 마른색에와 물은색에 물통을 동시에 진행하며 갈이때 갈이와 이랑짓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절약형 종합도양관리농기계이다.

이 기계는 한해전 정광성동무가 어느 한 농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농장의 관리운영상태를 연구하는 과정에 트랙터의 각종들이 높지 못해 논밭갈이에서 몸시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착상해낸것이다.

정광성동무가 자기의 착상을 농업기계화학부 교원인 박명철동무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전공분야도 아닌데 왜 할수 있을가?》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선생님, 우리가 실습을 통해 체험으로 한가지라도 해결해야 산지식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정광성동무는 박명철동무의 방조밑에 종합도양관리농기계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끝까지 밀고나갔으며 수안군 석회동농장에서 시험단계를 거쳐 완성된 장안품을 내놓을수 있었다.

박명철은 이런 청년대학생들이 바로 조국을 떠돌고나갈 앞날의 역군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라.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건보보수사업소 로동자 김강동무는 탐구심이 강한 청년이다.

그가 창안하여 완성한 현대화된 수제견조차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원래 이 견조차는 건설현장 오배되어 먼지가 세어나와 로동자들의 건강과 사업소의 생산문화확립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리강동무는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기와 같은 피끓는 청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이미전부터 무리히오던 견조차게조안을 빨리 완성시켜야

를 내놓았다.

은갈이때 마른색에와 물은색에 물통을 동시에 진행하며 갈이때 갈이와 이랑짓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절약형 종합도양관리농기계이다.

이 기계는 한해전 정광성동무가 어느 한 농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농장의 관리운영상태를 연구하는 과정에 트랙터의 각종들이 높지 못해 논밭갈이에서 몸시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착상해낸것이다.

정광성동무가 자기의 착상을 농업기계화학부 교원인 박명철동무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전공분야도 아닌데 왜 할수 있을가?》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선생님, 우리가 실습을 통해 체험으로 한가지라도 해결해야 산지식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정광성동무는 박명철동무의 방조밑에 종합도양관리농기계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끝까지 밀고나갔으며 수안군 석회동농장에서 시험단계를 거쳐 완성된 장안품을 내놓을수 있었다.

박명철은 이런 청년대학생들이 바로 조국을 떠돌고나갈 앞날의 역군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라.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건보보수사업소 로동자 김강동무는 탐구심이 강한 청년이다.

그가 창안하여 완성한 현대화된 수제견조차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원래 이 견조차는 건설현장 오배되어 먼지가 세어나와 로동자들의 건강과 사업소의 생산문화확립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리강동무는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기와 같은 피끓는 청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이미전부터 무리히오던 견조차게조안을 빨리 완성시켜야

를 내놓았다.

은갈이때 마른색에와 물은색에 물통을 동시에 진행하며 갈이때 갈이와 이랑짓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절약형 종합도양관리농기계이다.

이 기계는 한해전 정광성동무가 어느 한 농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농장의 관리운영상태를 연구하는 과정에 트랙터의 각종들이 높지 못해 논밭갈이에서 몸시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착상해낸것이다.

정광성동무가 자기의 착상을 농업기계화학부 교원인 박명철동무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전공분야도 아닌데 왜 할수 있을가?》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선생님, 우리가 실습을 통해 체험으로 한가지라도 해결해야 산지식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정광성동무는 박명철동무의 방조밑에 종합도양관리농기계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끝까지 밀고나갔으며 수안군 석회동농장에서 시험단계를 거쳐 완성된 장안품을 내놓을수 있었다.

박명철은 이런 청년대학생들이 바로 조국을 떠돌고나갈 앞날의 역군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라.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건보보수사업소 로동자 김강동무는 탐구심이 강한 청년이다.

그가 창안하여 완성한 현대화된 수제견조차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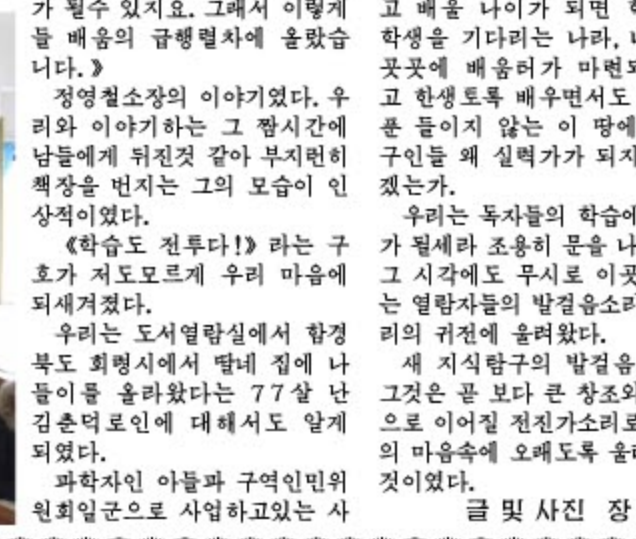
원래 이 견조차는 건설현장 오배되어 먼지가 세어나와 로동자들의 건강과 사업소의 생산문화확립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리강동무는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기와 같은 피끓는 청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이미전부터 무리히오던 견조차게조안을 빨리 완성시켜야

를 내놓았다.

은갈이때 마른색에와 물은색에 물통을 동시에 진행하며 갈이때 갈이와 이랑짓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절약형 종합도양관리농기계이다.

이 기계는 한해전 정광성동무가 어느 한 농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농장의 관리운영상태를 연구하는 과정에 트랙터의 각종들이 높지 못해 논밭갈이에서 몸시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착상해낸것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원적인 하나입니다.》**

얼마전 당보에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 최근년간 전국적인 대학프로그람경연들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국제적인 프로그람 경연들에 출전하여 거의 매년 우승함으로써 세계프로그램계를 놀래우고있는 소식이 실리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참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는 소식이였다. 어찌 이를 자랑이겠는가.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 이 임명을 안고 과학탐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자랑할 만 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모두가 평범한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이라.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의 대학생들은 과연 어떤 토양에서 배우며 자라고있는가.

불문듯 며칠전 창경 거리에

서 김형직사범대학의 박사원에게 다니는 계련동무를 만났던 일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평범한 근로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가 온 한군내지 않고 중학교과정을 마친후 오지못한 장학금을 받으며 김형직사범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박사원에 다니는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박사원에 다니는

한마디도 말하여 이 땅 그 어디에서도 학비라는 말은 들을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의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조선에서는 전반체 12년제의 무료교육이라 하며, 박사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비용도 역시 무료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

해주시 수명들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말모자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글이 실린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인 정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전대학생의 80%이상이 학비를 받기 위해 식당이나 사관, 유충업소에서 과외로동을 하고있으며 학생제실현대상으로 제몫을 받지 못해 사회적 저주하며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사람들속에서는 《등록금은 부자들만 낼수 있다.》, 《등록금은 데로 버려다.》, 《등록금은 치위 허리 부러진다.》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남의 교육은 희망은

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희망의 내배를 활짝 펼쳐가는 우리의 대학생들처럼 행복만대 학생들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나 한지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어떤 현실이 빚어지고있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학의 학생명단에 이름서자들 등록하는

말모를 꾸짖었다.

이렇게 되자 말에는 출면서 자기가 돈을 벌이 공부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다. 말에가 집을 뛰쳐나가게 되자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해 가족이 잠든 사이에 방안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든 가족이 타죽고말았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이것은 비단 이 한가정의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다.

하기에 우리의 대학생들은 고마운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회주의조국에서 태어난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부듯이 느끼고 있다.

정병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가 담보해주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본사기자 현경철

죽이고 절망은 키우는 미친 교육이다.》라고 개탄하는 정도이다.

한가지 실례가 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가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다니는 막내딸이 어느 한 학원에 가야만 공부할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부모에게 학원에 보내달라고 졸라대자 어머니는 너무도 안타깝고 속상한 나머지

말모를 꾸짖었다.

이렇게 되자 말에는 출면서 자기가 돈을 벌이 공부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다. 말에가 집을 뛰쳐나가게 되자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해 가족이 잠든 사이에 방안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든 가족이 타죽고말았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이것은 비단 이 한가정의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다.

하기에 우리의 대학생들은 고마운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회주의조국에서 태어난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부듯이 느끼고 있다.

정병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가 담보해주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본사기자 현경철

두 사회제도에 비낀 후대들의 모습

언니의 심정도 마찬가지로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며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떠나서 어떤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인가 고맙게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학금! 퇴색겨울수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장학금으로 무료교육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실시되고있다.

전국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무료교육단계로부터 대학 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 아닌가.

수제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 국가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

해주시 수명들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말모자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글이 실린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인 정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전대학생의 80%이상이 학비를 받기 위해 식당이나 사관, 유충업소에서 과외로동을 하고있으며 학생제실현대상으로 제몫을 받지 못해 사회적 저주하며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사람들속에서는 《등록금은 부자들만 낼수 있다.》, 《등록금은 데로 버려다.》, 《등록금은 치위 허리 부러진다.》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남의 교육은 희망은

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희망의 내배를 활짝 펼쳐가는 우리의 대학생들처럼 행복만대 학생들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나 한지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어떤 현실이 빚어지고있는가.

